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의 타당화

Validation of Sport Retirement Anxiety Scale

김동현(한국체육대학교 강사) · 한우리(강원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 · 김미선(케이스포츠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윤기운(전남대학교 교수)
· 육영숙(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김문희*(한국체육대학교 강사)

Dong-Hyun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 Lecturer* · Woo-Ri Han *Center for Sport Science in Gangwon, Researcher* · Mi-Sun Kim *K-Center, Director* · Gee-Woon Yoon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Young-Sook Yook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 Mun-Hee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 Lecturer*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김동현, 2021)를 대상으로 통합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도적 표집방법을 활용해 대학 및 실업 운동선수 2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스포츠 은퇴불안,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IBM SPSS AMOS 21과 IBM SPSS Statistics 21을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13문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은퇴불안은 진로미결정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 은퇴불안의 하위요인 중 운동이쉬움은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의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요인 10문항 적절하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tegrated validity of the sports retirement anxiety scale (Kim Dong-hyun, 2021).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285 university and semi-pro athletes, and finally 270 data were analyzed. The survey tools used a measure of sports retirement anxiet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identity.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tems using IBM SPSS AMOS 21 and IBM SPSS Statistics 21, 13 questions were found to be three factor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sports retirement anxiet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retire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retirement anxiety and career ident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However, among the sub-factors of sports retirement anxiety, exercise regret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and career identity. As a result o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validity of the sports retirement anxiety scale, 10 questions with 2 factors are appropriate.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retirement anxiety of athletes.

Key words : sport retirement anxiety, unified validation

* 교신저자 : 김문희(kmhsk0557@naver.com)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RF-201751A5A2A03067808).

I. 서론

은퇴불안은 은퇴가 다가왔을 때 불확실하고 파괴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걱정을 의미한다(Fletcher & Hansson, 1991). 경력 전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은퇴에 직면하게 된 개인은 우울, 불안 및 절망감을 느낀다(서성만, 2018). 은퇴불안은 중년의 행복(Vinick, & Ekerdt, 1989), 심리적 안녕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옥상미, 전해성, 2016; 채경선, 김만기, 2018). 은퇴불안은 은퇴준비를 방해한다(Ekerdt, 1989).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는 은퇴불안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운동선수는 실업 및 프로 진출 가능성이 낮고(원영인, 김지태, 2017), 일반직종보다 은퇴 시기가 빠르다(최재섭, 2014). 통상적으로 운동선수의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되면 노장(老將)에 속해 은퇴를 고려한다(채진석, 신진이, 남덕현, 2018). 부상 및 경기력 저하(김중환, 홍재승, 2015)와 같은 비자발적 은퇴를 할 경우 운동선수는 우울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다(한상덕, 1999; 구민정, 2008). 은퇴불안은 운동선수의 경력전환 및 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현, 2021).

은퇴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미래 계획 상태(Macewen, Barling, Kelloway, & Higginbottom, 1994), 자신감(이은주, 이지연, 2016), 통제력(Hayslip, Beyerlein & Nichols, 1997), 주요타자에 대한 의존성(Campbell, 1976; 채경선, 김만기, 2018에서 재인용) 등이 은퇴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잘 견디지 못하거나(김수연, 권경인, 2020), 경력전환이 쉽지 않은 직업군에서 은퇴불안이 높게 나타난다(Fletcher, & Hansson, 1991).

은퇴불안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은 은퇴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노인은 오랫동안 조직에 애착을 느껴왔으며, 고령화로 경력전환에 대한 통제력이 낮기 때문이다(Fletcher, & Hansson, 1991).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은퇴불안은 삶에 큰 장애물이 된다(Froidevaux, Bergman, & Segel-Karpas, 2022). 이와 유사하게 운동선수는 오랫동안 자신의 종목에만 전념해왔으며(이용식, 2015), 학습기회가 부족해 새로운 진로에 대한 효능감이 낮다(김동현, 2020). 이러한 특성은 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높이고,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조직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은퇴 후 명확한 규정이나 존재하지 않은 사회에서 긴장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송진영, 2008). 스포츠 역시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로 형성되어 있다(Coakley, 1983). 은퇴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동성과 다양한 역할은 운동선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현역 프로축구선수들은 은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명왕성, 원영신, 구송광, 2015).

근래 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은퇴요인 척도(채진석, 신진이, 남덕현, 2018), 은퇴의지 척도(채진석, 홍성봉, 2019)와 함께 원영인, 김지태(2017)는 은퇴불안에 주목하였다. 은퇴불안 척도는 동료은퇴, 부상발생, 부모기대, 경기력 저하 및 종목특성에 대한 대학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측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은퇴불안 척도는 상황적 측면만을 강조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실업팀 선수의 진로불안이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이정훈, 이명선, 2017), 은퇴불안 중 심리상태 불안이 높을수록 스포츠 자신감이 높고, 부상발생 불안이 높을수록 인지된 경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중, 한진욱, 2022). 이러한 연구는 앞서 제시한 일반 심리, 진로 및 교육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과는 상반된다.

또한 김동현(2021)은 은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중심으로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는 현역 운동선수의 진로걱정, 은퇴우울 및 운동아쉬움을 측정한다.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는 기존 척도를 보완해 운동선수의 부정적인 정서와 인지에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척도 개발 과정에서 귀납적 내용분석,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만을 실시해 척도가 갖추어야 할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오수학(2000)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인타당도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준거 타당도로 구분해 일부만 차용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Benson(1998)은 통합적 타당화를 실제 단계, 구조 단계 및 외적 단계로 제시하였다. 실제 단계에서는 구인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구조 단계에서는 관찰 변수들 간의 내적 관련성을 규명한다. 외적 단계에서는 준거 관련 증거를 포함해 다른 구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렇게 실시되는 통합적 타당도는 가능한 모든 근거를 수집해 검사 점수를 해석하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타당도와 구분된다(이원석, 2008; AERA, APA, & NCME,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중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김동현, 2021)를 대상으로 통합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운동선수의 은퇴불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척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021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은 연구 목적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이동진, 2018). 연구목적과 접근성을 고려해 대학팀 및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 285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응답이 확실적이거나 누락된 15명을 제외한 270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2.0세(± 2.7), 평균선수경력은 9.3년(± 2.9)이었으며, 성별, 소속 및 운동종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징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52(56.3)
	여성	118(43.7)
소속	대학	243(90.0)
	실업	27(10.0)
운동종목	댄스스포츠	1(0.4)
	배드민턴	77(28.5)
	복싱	10(3.7)
	사격	2(0.7)
	사이클	1(0.4)
	수구	7(2.6)
	수영	18(6.7)
	스쿼시	1(0.4)
	역도	7(2.6)
	유도	10(3.7)
	육상	9(3.3)
	조정	11(4.1)
	체조	1(0.4)
	카누	9(3.3)
	태권도	41(15.2)
	펜싱	53(19.6)
	핸드볼	12(4.4)

2. 연구내용 및 절차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해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김동현, 2021), 진로미결정(Tak, & Lee, 2003) 및 진로정체감(김신정, 김성희, 2012) 척도를 네이버 폼(NAVER form)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1면은 연구목적 및 유의사항 그리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문지 제작 과정에서 동료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해 설문지의 부적절한 문장 및 오타 등을 교정하였다. 완성된 온라인 설문지는 연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팀 및 실업팀 선수에게 배포하였다. 총 285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15명의 자료를 제외한 270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1)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

김동현(2021)이 대학 및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를 활용하였다.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는 3요인 16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걱정 6문항(e.g., 나는 은퇴를 상상하면, 무엇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지 걱정된다.), 은퇴우울 7문항(e.g., 나는 은퇴를 상

상하면, 박탈감이 든다.), 운동아쉬움 3문항(e.g., 나는 은퇴를 상상하면, 운동선수로서 미련이 남는다.)을 측정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걱정은 .913, 은퇴우울은 .907 그리고 운동아쉬움은 .810으로 나타났다.

2) 진로미결정 척도

진로미결정 척도는 Tak과 Lee(2003)가 한국형으로 개발하였다. 진로미결정 척도는 5요인 22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정보부족 6문항(e.g., 내가 바라는 직업의 미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자기명확성부족 4문항(e.g.,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e.g.,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필요성인식부족 4문항(e.g., 현재는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외적장벽 4문항(e.g.,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을 측정한다. 진로미결정 척도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1, 14, 18, 21, 22을 제외한 5요인 17문항, 모형 적합지수는 $\chi^2 = 314.652$, $df=109$, $p=.000$, $Q=2.887$, $CFI=.932$, $TLI=.915$, $RMSEA=.084(90\% CI=.073-.095)$, $SRMR=.047$ 로 나타났다.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직업정보부족 .910, 자기명확성부족 .922, 우유부단한성격 .816, 필요성인식부족 .783, 외적장벽 .866으로 나타났다.

3) 진로 정체감 척도

김신정과 김성희(20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 정체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진로 정체감 척도는 3요인 23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요인 8문항(e.g., 나는 진로에 대한 나의 능력을 몰라서 걱정스럽다.), 인지요인 8문항(e.g., 나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 갈 것이다.), 행동요인 7문항(e.g.,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을 측정한다. 진로미결정 척도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 5, 9, 14, 16, 17, 18, 19, 23을 제외한 3요인 15문항, 모형 적합지수는 $\chi^2 = 247.309$, $df=87$, $p=.000$, $Q=2.843$, $CFI=.939$, $TLI=.926$, $RMSEA=.083(90\% CI=.071-.095)$, $SRMR=.067$ 로 나타났다.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정서요인 .935, 인지요인 .875, 행동요인 .81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는 네이버 폼 자체 기능을 활용해 연구자의 노트북에 다운 받은 후 Microsoft Excel 365로 변환하였다. 선행연구(김동현, 2021)에서 완수하지 못한 구조단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IBM SPSS AMOS version 21의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활용해 기술통계, 문항 간 상관계수, 문항 간 내적 일관성(Cronbach α)을 분석하였다. 이후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을 활용해 성별에 따른 스포츠

은퇴불안의 집단 차이,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신뢰도 95%($p<.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구인 타당도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이 .40보다 낮은 문항 12, 13을 제외한 3요인 14문항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지수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chi^2=255.467$, $df=74$, $p=.000$, $Q=3.452$, $GFI=.873$, $CFI=.926$, $TLI=.909$, $RMSEA=.095$ (90% $CI=.083\sim.108$), $SRMR=.065$ 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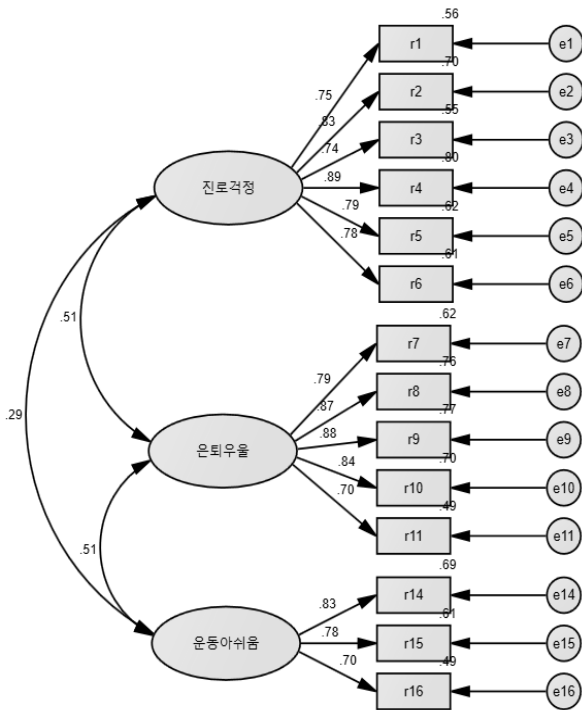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위요인별로 문항 간 상관계수를 아래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문항 간 상관계수는 진로걱정의 6문항 .515~.764, 은퇴우울의 5문항 .579~.818, 특히 은퇴우울을 측정하는 r8과 r9이 상관계수는 .81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운동아쉬움의 3문항 .525~.668로 나타났다($p<.01$).

2. 준거 타당도

1)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분석 결과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와 정적 관련성이 예측되는 진로미결정 척도를 선정하였다.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두 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125~.558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진로걱정과 필요성인식 부족($r=.097$), 운동아쉬움과 직업정보부족($r=.077$), 자기명확성부족($r=.003$) 및 외적장벽($r=.043$)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성격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벽
진로걱정	.573**	.495**	.558**	.097	.192**
은퇴우울	.271**	.262**	.273**	.158**	.358**
운동아쉬움	.077	.003	.134*	.125*	.043

* $p<.05$, ** $p<.01$

2)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와 부적 관련성이 예측되는 진로정체감 척도를 선정하였다.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592 ~ -.149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은퇴우울과 행동요인($r=-.047$), 운동아쉬움과 정서요인($r=-.065$), 인지요인($r=.010$) 및 행동요인($r=.068$)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

구분	정서요인	인지요인	행동요인
진로걱정	-.592**	-.125*	-.149*
은퇴우울	-.395**	-.219**	-.047
운동아쉬움	-.065	.010	.068

* $p<.05$, ** $p<.01$

IV. 논의

본 연구는 김동현(2021)이 개발한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3요인 14문항으로 수정한 모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χ^2 값의 유의수준은 .05 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크기, 모델의 복잡성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최창호, 유연우, 2017) 본 연구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및 SRMR(Standard Root Mean-square Residual)를 토대로 해당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해당 모델의 CFI와 TLI는 .90이상, SRMR가 .10 이하로 나타나 스포츠 은퇴불안을 측정하는 구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문항 간 내적 일관성 분석은 α 값을 토대로 .7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Lance, Butts, & Michels, 2006).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α 값은 모두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이면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Ferketich, 1991), .80을 초과하면 공분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엄명용, 조성우, 2005).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별 문항 간 상관계수는 .515~.818로 나타났다. 특히 r8과 r9의 상관계수는 .818로 나타나 두 문항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둘째,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미결정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걱정과 필요성인식부족의 상관성 그리고 운동아쉬움과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및 외적장벽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은 특정한 이유 없이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Crites, 1981). 진로미결정과 불안은 정적인 관련성이 높다(Fuqua, Newman, & Seaworth, 1988).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미결정은 특성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아, 김진숙, 20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은퇴불안 중 진로걱정과 진로미결정 중 필요성인식부족 사이에서는 정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당시 참여자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참여할 당시 현역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참여자의 진로결정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스포츠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은퇴우울과 행동요인의 상관성 그리고 운동아쉬움과 정서요인, 인지요인 및 행동요인과의 상관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능력, 진로에 대한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의미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Marcia, 1980). 진로정체감은 불안과 같은 성격 및 정서 요인과 관련이 있다(Mauer & Gysbers, 199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장애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사실은 은퇴불안과 진로정체감의 부적 관련성을 지지한다(김신정, 김성희,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은퇴불안 중 은퇴우울과 진로정체감 중 행동요인 사이에서는 부적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운동선수는 일과의 대부분을 운동과 함께 보내며, 현역선수로서 진로발달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행동하기 어렵다(Erpic, Wylleman, & Zupancic, 2004; Lavallee & Robinson, 2007). 따라서 은퇴우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요인 및 정서요인과 달리 실질적으로 진로에 대한 자료를 찾고 진로를 체험하는 행동요인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스포츠 은퇴불안 하위요인 중 운동아쉬움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아쉬움 요인의 이론적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운동아쉬움은 “스포츠 은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는” (김동현, 2021, p. 166) 것을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의 운동선수생활을 깨끗이 잊지 못하고 미련을 갖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불만족스러웠던 선수 생활에 대한 회한에 가깝기 때문에 걱정 및 우려와 같은 부정적 정서인 불안과는 거리가 있다(정정희, 구우영, 권성호, 김병준, 김영숙 외, 2009). 따라서 스포츠 은퇴불안 중 운동아쉬움 요인은 구인타당도는 높으나 준거타당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김동현(2021)의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에 대한 통합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구인 타당도 및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걱정, 은퇴우울, 운동아쉬움을 포함한 3요인 14문항의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분석 과정에서 은퇴우울 중 r8과 r9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준거 타당도에서는 스포츠 은퇴불안 중 운동아쉬움이 진로미결정 및 진로정체감 일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향후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를 활용한다면, 은퇴우울을 측정하는 변수 r8 또는 r9를 삭제하고, 운동아쉬움에 대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동아쉬움은 선행연구와 달리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은퇴불안 척도를 토대로 운동선수에게 체계적인 스포츠심리학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은퇴불안 척도가 진로상담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채경선, 김만기, 2018; Oluseyi, & Olufemi, 2015). 실제로 상담기법 중 하나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상미, 전해성, 2016). 셋째,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운동선수는 은퇴를 새로운 삶으로 평가하거나(박두제, 원영신, 2014), 은퇴 후 활기찬 정서 상태를 경험하였다(서진교, 1997). 운동선수가 경험하는 은퇴의 양가적인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민정(2008). 여자배구선수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 김동현(2020).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발달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김동현(2021). 스포츠 은퇴불안 척도 개발. **코칭능력개발지**, 23(1), 162-170.
- 김수연, 권경인(2020). 중년 남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교육연구논총**, 41(2), 101-130.
- 김신정, 김성희(2012).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3), 1325-1441.
- 김종환, 홍재승(2015). 프로축구선수의 은퇴에 대한 인식 연구. **체육과학연구**, 26(2), 49-69.
- 명왕성, 원영신, 구송광(2015). 현직 K리그 선수들의 은퇴에 관한 인식 및 준비과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6(2), 254-266.
- 박두제, 원영신(2014). 국가대표출신 아이스하키 은퇴선수들의 직업 전환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2), 27-53.
- 박현중, 한진욱(2022). 실업 핸드볼 선수의 은퇴불안, 은퇴 후 삶의 기대, 스포츠 자신감 및 인지된 경기력. **한국체육학회지**, 61(2), 327-342.
- 서성만(2018).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예비은퇴자의 은퇴불안 관련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서진교(1997).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8, 133-152.
- 송진영(2009). **중년 남성의 다중역할 몰입,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모형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엄명용, 조성우(2005). **사회복지실천과척도개발: 표준화된척도를중심으로**. 학지사.
- 오수현(2000). 통합적 개념으로서 구인타당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 67-77.
- 옥상미, 전해성(2016).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4), 373-393.
- 원영인, 김지태(2017). 대학운동선수의 은퇴불안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6(6), 351-362.
- 이동진(2018). QR코드를 활용한 NEW 임상연구방법론. **서울: 퍼시픽북스**.
- 이용식(2015). 대학운동부 학습권 보장 및 학업증진 정책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3(2), 1-15.
- 이원석(2008). 타당도에 대한 통합적 관점. **교육평가연구**, 21(4), 67-79.
- 이은주, 이지연(2016). 중년기 직장인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은퇴불안 및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3(1), 71-94.
- 이정아, 김진숙(202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특성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5(3), 143-166.
- 이정훈, 이명선(2017). 실업팀 육상선수들의 진로불안이 운동몰입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371-381.
- 정청희, 구우영, 권성호, 김병준, 김영숙, 김영호 외(2009). **스포츠심리학**. 서울: 레인보우북스.
- 채경선, 김만기(2018). 은퇴를 앞둔 공무원, 공기업 중년기 남상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7(4), 127-151.
- 채진석, 신진이, 남덕현(2018). 운동선수출신의 은퇴요인 탐색과 측정도구의 타당화.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0(2), 67-82.
- 채진석, 홍성봉(2019). 현역대학운동선수의 은퇴의지 측정도구의 타당화.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1(4), 135-148.
- 최재섭(2014). 한 은퇴선수의 경력전환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7(1), 63-102.
- 최창호, 유연우(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합연구**, 15(10), 103-111.
- 한상덕(1999). 프로축구선수들의 은퇴태도 및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4), 172-185.
- Fletcher, W. L., & Hansson, R. O. (1991). Assessing the Social Co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Psychology and Aging*, 6(1), 76-85.
- AERA, APA, & NEMF(2014).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Barling, J., MacEwen, K. E., Kelloway, E. K., & Higginbottom, S. F. (1994). Predictors and outcomes of elder-care-based interrole conflict. *Psychology and Aging*, 9(3), 391.
- Benson, J. (1998). Developing a strong program of construct validation: A test anxiety example.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8(1), 10-22.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
- Coakley, J. J. (1983). Leaving Competitive Sport: *Retirement or Rebirth, Quest*, 35, 1-11.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Ekerdt, D. J. (1989). Retirement preparation.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9(1), 321-356.
- Erpic, S. C., Wylleman, P., & Zupancic, M. (2004). The effect of athletic and non-athletic factors on the sports career termination proces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 45-59.
- Ferketich, S. (1991). Focus on psychometrics. Aspects of item analysi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2), 165-168.
- Froidevaux, A., Bergman, Y. S., & Segel-Karpas, D. (2022). Subjective nearness-to-death and retirement anxiety among older worker: A three-way interaction with work

-
- group identification. *Research on Aging*, 44, <https://doi.org/10.1177/01640275221079023>.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Hayslip, B., Beyerlein, M., Nichols, J. A. (1997). Assessing anxiety about retirement: The case of academicians,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4(1), 15-36.
- Holland, J. I.,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191-1200.
- Lance, C. E., Butts, M. M., & Michels, L. C. (2006). The sources of four commonly reported cutoff criteria: What did they really say?.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9(2), 202-220.
- Lavallee, D., & Robinson, H. K. (2007). In pursuit of an identity: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retirement from women's artistic gymnastic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1), 119-141.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5, 159-187.
- Mauer E. B., & Gysbers, N. C. (1990). Identifying career concerns of entering university freshman using my vocational situat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55-165.
- Oluseyi, A. E., & Olufemi, O. O.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tirement anxiety scal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Osun State,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7(2), 138.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Vinick, B. H., & Ekerdt, D. J. (1989). Retirement and the family. Gener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n Aging*, 13(2), 53-56.